서운 대종사 법등 이을 전등사 역사문화관 준공

30주기 다례재 · 교육관 준공 법회
인천·경기 서부 전법 거점 '기대'
'처무규정' 발굴 개정판 문집 발간
세미나 개최…12월까지 사진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강화 전등사는 11월 8일 서운 대종사 30주기 다례재 및 역사문화교육관 준공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역사문화교육관 테이프 커팅 모습.


서운 대종사 30주기 다례재에서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이 영전에 절하는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번 역임하고 불교정화운동을 이끈 서운 대종사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법등을 이을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건립 불사가 원만 회향했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는 11월 8일 '서운 대종사 30주기 다례재 및 역사문화교육관 준공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등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 장윤 스님, 원로의원 법등 스님(제산문도회 대표), 서운문도회 대표 무선 스님 등 문도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서운 스님이 직접 만들었으나 그동안 이름만 전해지던 '처무규정(處務規定)'의 등사본 원본과 옛 사진, 신문기사, 서철류 등을 담은 〈서운대종사문집〉이 봉정됐다. 이어 주지 여암 스님은 문집 발간에 기여한 공로로 김광식 교수(동국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다례재 후 열린 역사문화교육관 준공 기원법회에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며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축하했다.

총사업비 84억원이 투입된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은 연면적 884㎡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한옥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지하층에는 다목적문화홀과 어린이법당, 북카페, 교육실 및 강의실,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되고 지상층에는 템플스테이에 사용될 방사가 배치됐다. 전등사는 교육관을 템플스테이와 어린이 법회,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청소년·청년 세대를 포용하는 복합문화포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교육관은 서운 대종사께서 일생을 통해 밝히신 법의 등불을 이어받아 수행과 교육, 전통과 현대를 잇는 선문화의 중심 도량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교육관을 통해 인천과 수도권 서부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우리 전통문화를 전 세계로 펼쳐 나가는 전진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관에서는 '이목당 서운 대종사 30주기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은 여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새롭게 드러난 서운 대종사의 위법망구하는 애종심이 저희 문도들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귀감이 되어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정휴 스님은 "서운 큰스님께서는 출가 전 용맹정진을 통해 제산 스님께 깨달음을 인가받은 분"이라며 "지극한 효성으로 역사 속에 잠든 큰스님을 일깨워 여러분에게 그 진면목을 보이게 한 장윤 스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의 사회로 김광식 교수가 '서운 대종사의 큰스님론', 박부영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이 '서운 대종사의 총무원장 활동·성격',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봉은사 토지의 매각과 이목 서운의 대응'을 발표했다.

한편, 전등사 대조루에서는 12월 31일까지 '서운 대종사 30주기 사진전-차가운 달, 빈 산의 진리'가 열린다.

"종교갈등 화쟁적 해법, 사회적 연대에 있다"

조계종연구소, 11월 10일 세미나
'화쟁에 기반한 사회갈등 연구'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 또 사회 속에서 종교라는 분야가 지녀야 할 존립 가치를 화쟁적 해법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11월 10일 서울 센트로폴리스 컨퍼런스 세미나룸에서 '2025년 2차 학술세미나-화쟁에 기반한 사회 갈등 연구'를 개최했다.〈사진〉 '한국사회의 종교 갈등, 그 화쟁적 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이 자리가 기독교, 이슬람 등 각 종교의 경계를 넘어 상호 존중과 공감의 장이 되고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다.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발제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사회갈등의 연원과 현상에 대한 제언'에서 현 시기 한국사회에서 불교라는 이름으로 관계되는 대표적인 갈등 양상을 '호국불교', '문화재관람료', '공동성지'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고했다. 이날 민 연구원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불교의 공공성 회복은 '과거의 신성화된 전통'을 보존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불교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민 연구원은 "불이론은 이를 위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세속주의와의 대화는 그 실천적 장을 마련한다"면서 "나아가



호국불교의 성찰은 불교가 더 이상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정당화 도구가 아니라 시대적 윤리의 발전지로 거듭나야 함을 일깨운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종교 간의 공존'이나 '국가와의 화합'이라는 표면적 조화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자연이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연결돼 있다는 자각 위에서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는 일이라는 것. 민 연구원은 "불교가 이 시대에 다시금 의미를 가지려면 교리의 재해석과 제도적 개혁,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는 세 층위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이 사상은 종교 내부의 자기성찰과 외부 세계와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철학적 원천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찬수 아시아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은 '기독교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역사: 신앙화한 반공주의와 평화 지향의 화쟁'에서 한국사회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화쟁 논리와 그에 기반한 실천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정화 서울대 강사는 '현대 한국 사회 이슬람과의 갈등'을, 최유진 경남대 명예교수는 '원효의 화쟁과 종교 갈등의 해결'을 주제로 발제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새로운 100년 기틀 로터스관 불사 원력 모였다

동국대, 11월 12일 '동행의 밤'
스님 · 동문 동참…128억원 모연
돈관 스님 "100년 기틀 마련"

내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새로운 랜드마크 '로터스관' 건립 불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불교계와 동문들의 후원도 집중되고 있다.

동국대는 11월 12일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동국 120년, 로터스관으로 이어 가는 미래를 위한 동행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윤재웅 총장은 미래비전 발표를 통해 로터스관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터스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2422평), 별관은 지하 6층 지상 2층(5585평)으로 연면적 합계 2만6470㎡(8007평)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로는 △박물관 및 수장고 △선센터 △러닝 커먼스 △대형 교육공간 △명예의 전당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8년 8월 완공될 계획이다.

윤 총장은 "내년은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대학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건학이념 구현, 교육과 연구의 역량 강화, 재정 선순환, 인프라 확충 등 6대 추진 전략을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모든 동국인과 불자들의 염원인 로터스관 건립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동국대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가오는 10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인연이 밝은 내일의 씨앗이 되어, 우리 사회와 인류에 희망과 자비의 빛을 전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여러분의 원력이 이어져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환히 열리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현장 모금에서는 동국대 총동창회가 50억원을 쾌척해 눈길을 끌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자리에 동참했다"면서 "모교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숙원 사업인 로터스관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불사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동문이 함께 응원하고 후원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와 동문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동참해 로터스관 건립기금 128억8000만원을 모연했다.

윤 총장은 "이제 닻을 올렸으니 순풍에 돛을 달고 목표 지점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 '동국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건립 불사에 동참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80대 불자 정연화 보살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50억원 상당을 학교 발전을 위해 11월 6일 기부했다. 정연화 보살은 동국대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평소 지녀 온 깊은 신심과 회향의 뜻이 불연(佛緣)으로 이어지며 이번 기부로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실한 불자이자 동국대 동문기업인인 전순표 세스코 총회장은 11월 5일 발전기금 1억원을 학교에 쾌척했으며, 불자 개그맨이자 카레이서인 한민관 씨도 로터스관 건립 불사 기금 1000만원을 전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는 11월 12일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동국 120년, 로터스관으로 이어 가는 미래를 위한 동행의 밤'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 대중들이 로터스관 건립 불사를 알리는 점등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입 장 문

11월 7일 김제 금산사 주지실과 군산 은적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 은적사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조사에 협조하였고, 금산사는 압수수색 당시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도 좋다고 할 정도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에 비협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단으로 강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참담한 일이며,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및 대중 스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사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었으나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개산 1400년이 넘는 동안 전법의 등불을 밝혀왔던 금산사에 대한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불교와 불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내부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종헌 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며, 현재 종단 내부의 자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수사 당국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 사회의 법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금산사와 은적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승가회

보천사	주지	의종	원통사	주지	진일	성관사	주지	상진	불주사	주지	덕운	법륜사	주지	정국
영월암	주지	정효	상주사	주지	도연	단암사	주지	서림	팔성사	주지	성우	은적사	주지	법자
대원사	주지	대진	금선암	주지	덕산	금복사	주지	영명	송광사	주지	법진	남고사	주지	석초
귀신사	주지	무여	안수암	주지	보승	법우사	주지	삼명	망해사	주지	우림	안심사	주지	일연
서고사	주지	마일	문수사	주지	보견	옥련암	주지	동묵	죽림암	주지	정진	청룡사	주지	보생
원등사	주지	보광	진북사	주지	태유	학선암	주지	도웅	위봉사	주지	송욱	천고사	주지	우경
흥복사	주지	원혜	정수사	주지	효진	칠성사	주지	산성	귀정사	주지	혜도	학림사	주지	인담
학소암	주지	원묵	대복사	주지	원명	화암사	주지	방착	불교회관	주지	제환	덕음암	주지	진선
수현사	주지	원묵	수도암	주지	현성	선국사	주지	희권	관음사	주지	덕림	고림사	주지	성목
선원사	주지	운문	남원사	주지	관성	금당사	주지	원행	실상사	주지	승묵	문수사	주지	원공
옥천암	주지	경호	영선사	주지	월공	백운사	주지	우성	천황사	주지	현정	운지사	주지	용담
법성사	주지	혜민	안면암	주지	설봉	죽림정사	주지	창엄	사자암	주지	향봉	백운암	주지	광진
현불사	주지	법우	숭림사	주지	도헌	정각사	주지	각진	송원사	주지	신해	심곡사	주지	정안
선덕사	주지	담준	관음사	주지	자원	연국사	주지	묘주	무염사	주지	해안	백련사	주지	평상
자명사	주지	공해	북고사	주지	혜진	정각사	주지	일행	안국사	주지	능엄	신광사	주지	일문

불기 2569(2025)년 1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승가회